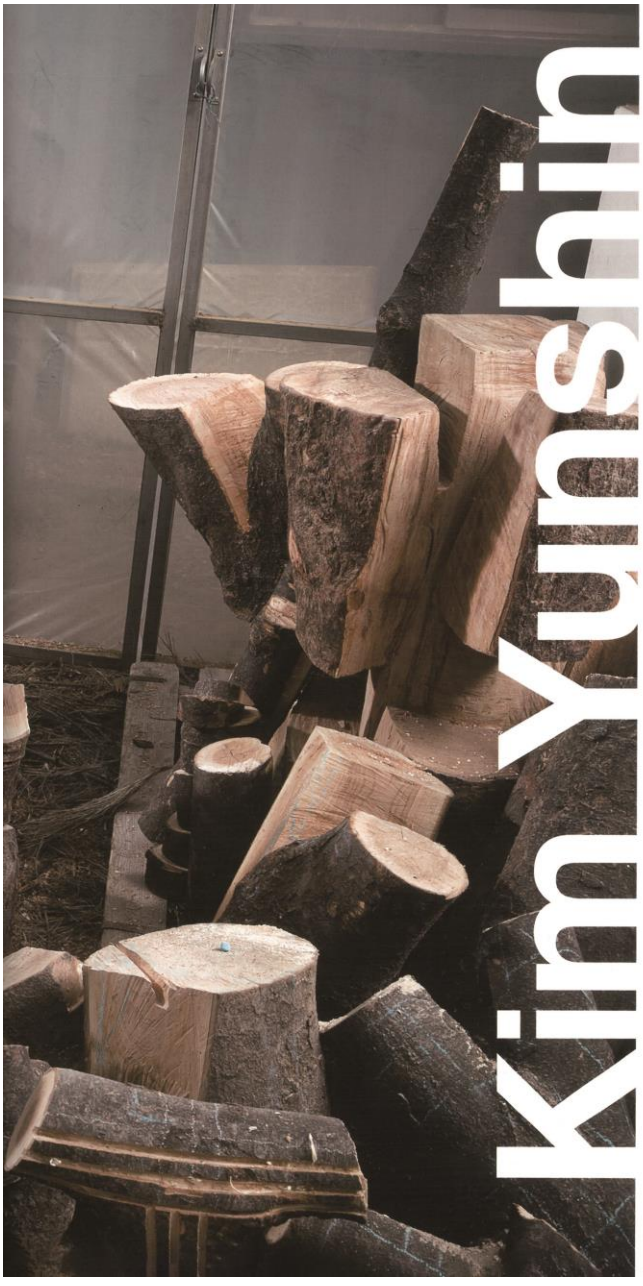
SPCIAL FEATURE 김윤신

April, 2023 | 임근준 에디터



김윤신은 88세의 원로 조각가다. 오늘도 전기톱을 들고 창작에 매진하는 짱짱한 '현역'이다. 그는 일평생 나무와 사투를 벌이며 생명의 근원을 좇고 있다. 나무의 혼. 김윤신의 예술 지표는 삶의 무대가 바뀌어도 면면이 이어졌다. 작가는 1935년 원산에서 태어나 전화를 피해 서울로 남하했다.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1964년 파리로 유학을 떠나 동서양 미학을 견주는 수련기를 거쳤다. 떠돌이의 면모는 1984년 아르헨티나 이주로 정점을 찍었다. 그는 40여 년간 남미의 돌과 나무로 우주, 원시, 영성 등의 주제에 천착했다. 날갯짓하는 곡선형 조각, 원초적 에너지를 담은 원색 회화로 자유의 이상향에 다다랐다. 김윤신의 예술세계에는 문화 충돌의 흔적과 문화 번역의 고뇌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한국과 남미의 향토색을 상호 연결해 독자적인 자기 언어를 확립했다. 아시아, 여성, 토속의 하모니…. 서구 미술계에서 평가절하되어 온 타자의 역습이다. 작가는 '비주류'의 조형으로 '범인류'의 가치를 창출했다. 지금, 김윤신의 예술적 성가를 재조명하는 〈더하고 나누며, 하나〉(2. 28~5. 7)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각, 회화, 판화 70여 점을 공개했다. 미술평론가 임근준이 김윤신을 만났다. 그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김윤신미술관장 김란과 정담을 나눴다. 김윤신은 꿈꾼다. 나는 나무가 되고, 나무는 내가 되고….

나무의 혼

/ 김윤신×임근준

임근준(Lim) 선생님은 원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함경도의 브나로드 운동도 원산 출신들이 주도했죠. 심훈의 소설 『상록수』(1935)가 원산 루씨고녀(원산루씨고등여학교) 출신 최용신의 이야기구요. 원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김윤신(Kim) 나 어렸을 때는 원산 교하동에서 살았어요. 다리 교, 아래 하. 다리 아랫동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벼슬을 하셨던 거 같아요. 관아에 들어가실 때는 모자도 쓰고 띠도 차고 그랬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중국 목단강 지역에서 한의사 하셨고요. 우리 집에는 딸만 다섯이에요. 내가 다섯 번째 막내지요. 그 가운데 오빠가 딱 한 분 계셨는데 삼대독자셨어요. 그러니깐 엄마한테는 아들이 하늘이에요.

전쟁의 포탄을 피해

Lim 아버님, 어머님 존함을 알려주세요.

Kim 아버지는 김병직, 어머니는 김화영. 엄마는 당악 김씨(唐岳 金氏)로,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경북 의성의 의성 김씨(義城 金氏)고요. 아무튼 나는 원산 살다가 금강산이랑 가까운 안변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원산에서는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과일밭이 많아요, 거기. 과일이 아주 맛있고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지요. 안변에서는 10살까지 살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산으로 피란 가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 좀 사는 집에는 밥그릇이 브론즈(놋쇠)였는데, 전쟁이 나니깐 일본 사람들이 집에 와서 다 내놓으라고 해서 마당에 꺼내두고 그랬어요. 그걸 실어가는 것도 봤고.

Lim 안변 시절 기억도 들려주셔요.

Kim 안변은 시골 마을이어서 농사짓는 노인들뿐이고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뭐, 자연이 내 친구지요. 땅에다 작대기로 그림도 그리고 울타리 수수깡을 휘어서 안경도 만들어 쓰고 놀았어요. 공책 하나 연필 하나 교과서 하나 넣은 보자기를 어깨에 매달고 학교까지 10리 길을 왔다 갔다 한 게 다예요. 그러다 어느날 산과 산

〈무제〉 캔버스에 유채 25×25cm 1981_ 김윤신은 조각과 회화를 병행해 왔다. 이 작품은 상명대 교수 시절에 그린 유기적 구성의 기하추상화.

왼쪽 페이지
〈합이합일 분이분일 1994-520〉 알가로보 나무 26×82×90cm 1994_김윤신 개인전 〈더하고 나누며, 하나〉 전경. 김윤신은 1970년대부터 목조각에 주력했다. 동양의 음양 사상과 한국의 전통 신앙에 영향을 받아 '합이합일 분이분일(合二合一 分二分一)'을 예술세계의 철학으로 삼고 작품명을 통일해 왔다.

사이를 지나 학교엘 가는데, 굵은 소나무가 무수히 잘려있었어요. '저 좋은 나무를 왜 자를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투 비행기에 기름이 모자라니까, 뿌리를 캐서 송진에서 기름을 짜내려고 그런대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쓰러진 나무들을 다 세워주고 싶었어요. 또 우리 오빠가 김국주(金國柱, 1924~2021)인데요, (1943년 19살에 중국으로 망명해 광복군으로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오빠가 김구 선생님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하실 때, 우리 엄마는 하늘 같은 외아들이 소식이 없으니깐 날마다 산에 가서 샘물을 떠다가 장독대 위에 놓고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예쁜 돌멩이를 주워다가 초 옆에 쌓고요. 그러다 1945년에 해방이 돼서 38선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는 벌써 이북하고 이남하고 자유 민주주의랑 공산주의가 딱 생겨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북쪽에선 공산주의 때문에 가진 건 다 나라 것이 됐어요. 땅이고 집이고 모조리 나라에서 뺏으니깐 다들 남으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합이합일 분이분일 2013-4〉 케브라초 나무 40×30×172cm 2013_'합'은 수렴, '분'은 분열을 의미한다. 두 기운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우주의 원리를 표현했다.

오른쪽 페이지
〈더하고 나누며, 하나〉 전경_이번 개인전에는 1960년대 파리 유학 시절 제작한 석판화부터 목조각, 석조각, 회화 등 작품 70여 점을 출품했다.

꼬마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찾거라

Lim 1948년도에 온 가족이 서울로 오셨습니까?
Kim 온 가족은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 모시던 오빠가 서울에 들어왔다고 연락이 돼서 엄마가 나만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언니 네 명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떠나질 못했지요. 엄마 손 잡고 38선을 밤새 걸어서 비밀리에 산속을 통과하다 보니깐 물소리가 철철 나더라고요. 강물이 새카맣게 보이는 한밤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줄지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넜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가 건넌 게 한탄강이라더군요. 그렇게 동두천 어귀에서 불잡혀 피란민 수용소 천막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엔 얼굴이 하얗고 뾰족하고, 이상한 흰옷도 입고, 머리에는 납작한 배처럼 생긴 모자를 탁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백인들을 난생처음 봤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얀 가루를 막 뿌렸거든요? 그때는 몰랐지. 그게 DDT(살충제)인 걸.
Lim 1948년 몇 월에 내려오셨어요?
Kim 가을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1]
Lim 수용소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Kim 한 달 정도인가, 길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하도 이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는 통에 제주도 아니면 전라도 지방으로 보내졌어요. 서울에는 바로 못 갔는데 저희는 운 좋게 같이 피란 간 동네 할머니 아들이 도와줬지요.
Lim 2년 후에는 6·25전쟁이 났습니다. 당시 시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Kim 서울시청 앞에 큰 건물, 그러니깐 조선일보 옆에 있는 건물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4년까지) 국회의사당이었어요. 원래는 강연도 하고 공연도 여는 '부민관'이라는 곳이었어요. 광복 후 한국전쟁 때까지도 공연장으로 썼던.[2] 그런 데가 명동 네거리에 '시공관'이라고 또 하나 있었고요. 아무튼, 거기서 무슨 무용을 한대서 보러 갔어요. 무대를 보는데 중간에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 쪽으로 탱크가 밀고 들어온다고요. 거기에 중국 군인들이 많이 탔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라고, 빨리 피란 가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3]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전쟁 속에서 보냈죠. 2차 세계대전 지나, 38선 건너와, 한국전쟁을 만나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네요.
Lim 피란은 어디로 가셨어요?
Kim 전쟁이 났는데 어린 조카가 둘 있었어요. 우리 엄마 입장에선 아들은 소식이

없고, 며느리와 아이들이랑 막내딸만 있었던 거지요. 저에게 "너는 네 오빠 소식을 알고 와야 하니깐 여기(서울) 남아라"라고 하셨어요. 부산 어디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지요.

김란(Ran) 당시 선생님이 살던 곳이 명동의 한미호텔이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독립운동가 친지를 거기 살 수 있게 배려했던 거죠.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 큰 건물에 16살 먹은 여자애 혼자 남아있었던 거예요.

Kim 아직 어렸으니깐, 무섭지. 탱크가 시내로 들어와서 내려가고, 서울 사람들은 쫓겨 가고. 나는 몸집이 작으니까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저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전쟁 때는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참 신기해요. 겁도 안 나고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

Ran 북한군이 휩쓸고 지나간 여름에는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시체가 쌓여있었대요. 선생님은 오빠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에 시체 산을 타고 올라가서 죽은 군인을 뒤집어 봤대요. 끔찍한 경험이지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폭죽 소리 같은 걸 무서워하세요. 무튼 그러다 선생님 혼자 부산으로 피란을 가다가 대구 삼덕동에 있는 어느 절에 머물렀는데 그때 수염이 길게 난 스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대요. 원래 이름이 점신? 정신? 이실 거예요. 스님이 '그 이름으로는 네 명이 짧다'라고 하면서 '윤신'으로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4]

Kim 진실 윤(允). 믿을 신(信). 이름을 바꿔서 살아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때 스님이 "꼬마야 너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무슨 색깔인지, 뭘 하든 평생 그걸 찾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잊히지 않아요.

Lim 이북에 계신 선생님 가족들과는 다시 못 뵈신 거지요?

Kim 못 봤죠. 아마 다들 돌아가셨을 거예요.

Ran 선생님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 제일 막내 언니가 최근 모습으로 나오셨대요. 아주 젊었을 때 헤어진 언니요. 그 언니가 허름한 옷을 입고선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왔다'라면서 인사를 하셨대요. 선생님은 아마 그때쯤 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Lim 남쪽에는 혈육이 누구누구 계셨던 거예요?

Kim 엄마랑 오빠네 가족만요. 엄마 임종도 저 혼자 봤어요.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어요. 그때 오빠는 안동 근처 부대에 계셨거든요. 12월 31일에 눈이 억수로 오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깐 엄마가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하고 달려가 안으니깐 뜨거운 김이 내 몸에 삭 오면서, 한쪽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아마 아들이 보고 싶어서인 거 같아요.

Lim 선생님은 홍익대 55학번이시지요? 당시 입시 실기 내용이 뭐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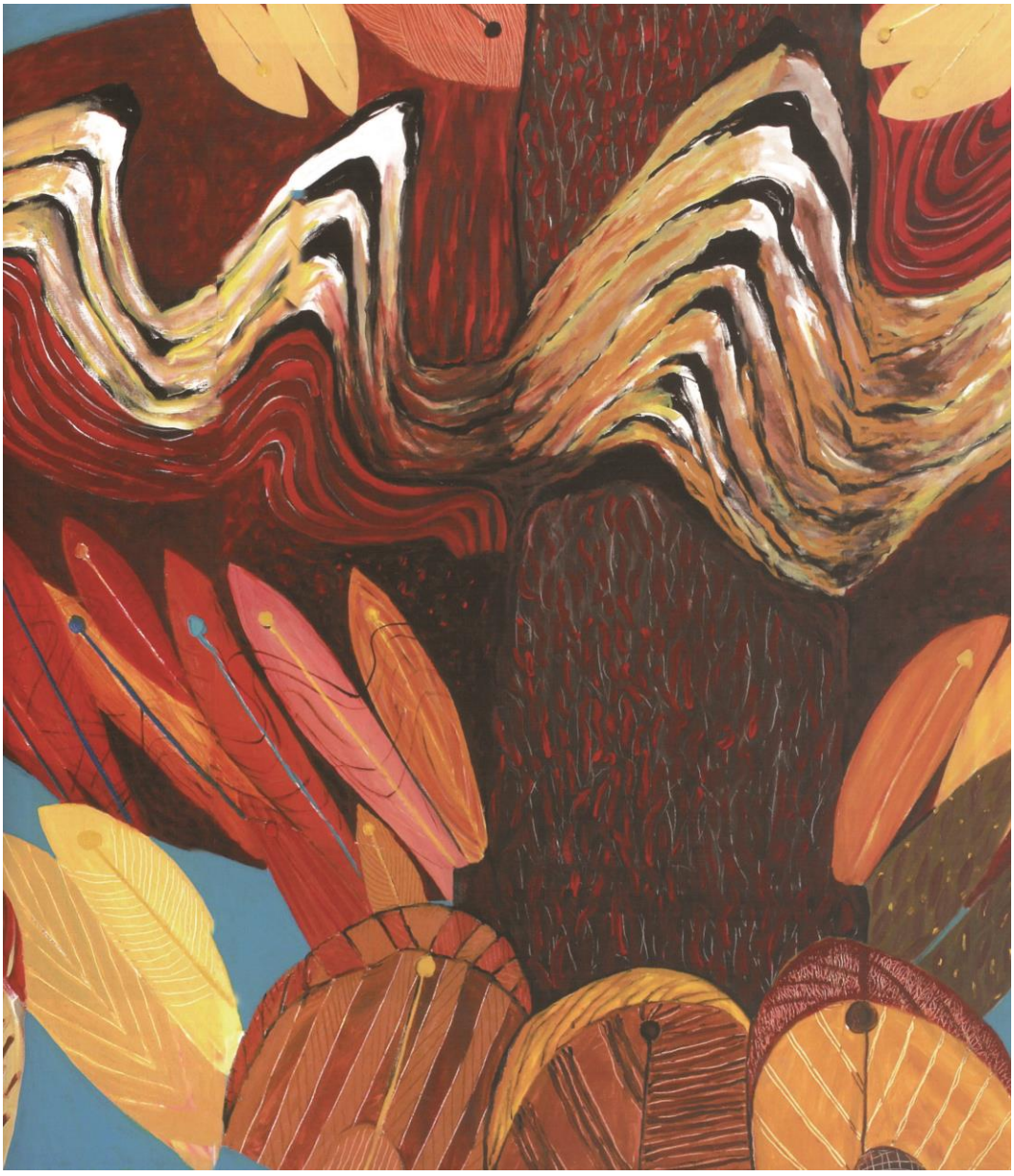
Kim 석고 데생 하나. 석고가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요. 운이 좋았는지 합격했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조각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1954년에 어쩌다 홍익대 교내전 하는 걸 보러 갔어요. 전시장이 명동 미도파인가, 큰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 교내전을 하는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때 전시를 보러 갔다가 감동해서 미술학교를 가게 됐어요.[5] 또 거기 교수님 중에 화가 김원(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황성칠이라는 친척 아저씨가 선생님 제자였거든요. 그렇게 김원(진) 교수님이 '너 우리 대학 들어와라'라고 해서 홍대에 관심을 가졌지요.

Lim 조소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학생이 몇 명 있었나요?

Kim 둘이요. 나랑 박영희(1936~). 우리 학년에 특히 여학생이 적었어요. 미술대학 전체 다 해도 조각과 2명, 건축과 1명(천병옥), 서양화과 3명(맹명옥 송경 전영희),

〈내 영혼의 쉼〉 캔버스에 유채 150×120cm 2014_김윤신은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영혼의 노래를 그림으로 그린다.

왼쪽 페이지
〈합이합일 분이분일 1995-556〉 라파초 나무 35×72×82cm 1995_〈더하고 나누며, 하나〉 전경. 1990년대 김윤신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종교적 이상을 담아 날개와 십자가 형상을 조형의 골조로 삼았다. 조각에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은 한옥 처마, 한복 소매 등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기인했다.



동양화과 1명(문은희) 해서 7명 정도였어요. 남학생으로는 이승택(1932~)이 있었네요.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땐 윤효중(1917~67) 선생이 학장 하실 때인데, 제가 여학생이 적으니 등록금 좀 싸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학생은 등록금을 반액으로 깎아줬지요. 집에다가는 등록금 돈 다 받아 와서 반은 내고, 반은 내가 썼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어요.

Lim 김정숙(1917~91) 교수의 수업도 들으셨지요? 그 시기 선생님의 용접 철조 작업을 보면 추상표현주의 성향이 느껴집니다. 수업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나요?

Kim 조소 시간에는 주로 모델을 썼지요. 김정숙 선생님도 똑같았어요. 한 학기 내내 전신(상)을 했으니깐, 몇 개월씩 걸려 작품 하나를 할까 말까 했어요. 김정숙 선생님께는 철 조각할 땐 아세틸렌이랑 산소 중 어떤 걸 먼저 틀고, 어떻게 잠그고, 또 뭐가 위험한지, 용접봉을 붙일 때 어떻게 녹여서 이런 느낌을 살린다, 그 정도만 배웠어요. 옛날엔 교수님 말씀이 귀했거든요. 대신 선배가 많았으니까 그네들이 알려줬지요. 김영중(1926~2005) 선생, 최기원(1935~) 선생, 전뢰진(1929~) 선생, 윤영자(1924~2016) 선생.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봐줬어요. 나는 대학 다닐 때 방학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방학에는 애들이 안 나오니깐 흙을 내가 혼자 다 쓸 수 있거든. 흙을 싹 쓸어서 나 혼자 대작을 하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수위 아저씨한테 막걸리 한 통 사다 드리면 겨울에도 연탄을 많이 때주셨어요.

한국 여성들이여, 움직여 보자!

Lim 선생님은 앵포르멜-단색화가들과 거의 동세대예요. 가령 같이 홍익대를 나온 하종현 선생님과 동갑이시지요. 1957년도에 반국전 선언하고 추상 미술운동을 전개하던 작가들과는 연결고리가 없었나요?

Kim 그다지요. 나는 내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같이 합의해서 뭘 하자는 데 불러주면 가기도 했지만, 기억에 많이 남지는 않아요.

Lim 미술운동이 막 벌어지던 때에 '아 나도 그룹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Kim 그런 건 파리 유학에서 돌아와서 생각했지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미술대학 출신 여성 작가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구나. 파리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고 여성 작가가 활약하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깝다, 움직여 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974년에 서울대 조소과 출신으로 금란여중 교사로 일하며 작가 활동을 이어가던 이양자 선생에게 이런 생각을 얘기했어요. 이 선생이 "아 그거 좋네요"라고 하면서 함께 뜻을 모았어요. 그러곤 윤영자 선생님을 화신백화점 앞에서 뵙고 차 한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성들은 힘이 약하고 어려우니깐, 함께 모여서 활동하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아유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서로 각 대학 출신 여성 작가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한 삼십 명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김정숙 선생님이 회장을 하고, 윤영자 선생님이 부회장을 맡으셨어요. 저는 총무였죠. 1974년 1월 12일 한국일보 13층 강당에서 한국여류조각가회 발족식을 가졌어요.

Lim 1963년 〈도불조각개인전〉에서 발표한 철조 조각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Kim 몰라요, 하나도 없어요. 당시 전시 때 오빠 아는 분들이 다 사주셨어요. 지금은 어디 갔으려나, 버려졌을지도요.(웃음) 아무튼 그때 조각 판 돈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어 그러고 보니깐 (재직했던) 상명대에 용접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합이합일 분이분일 2011-123〉 팔로산토 나무 33×51×52cm 2011_2000년대 이후 김윤신의 조각은 남미 토테미즘에 영향을 받았다. 나무의 겉껍질과 속살을 대조해 다양한 질감을 살렸다.

왼쪽 페이지
〈내 영혼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 90×90cm 2006_김윤신은 남미의 토속색과 한국의 오방색에서 영감을 받은 색채로 회화작업을 제작했다. 나이프로 물감을 긁은 기법에서 원시적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전 페이지
〈내 영혼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 150×460cm(부분) 2013

나네요? 내가 학생 때 만든 시멘트 작품 하나도 윤효중 학장님 댁 정원에 서있었어요.
Lim 1958년 제7회 국전에서 상 탄 〈아침〉은요?
Kim 그것도 몰라요, 어딨는지. 마땅히 둘 곳도 없었고요.
Lim 옛날 초기 작업을 찾는다는 공고를 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Ran 선생님 홍대 동기 친구분 중에 오태근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원래 파리도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가 사정이 생겨 못 갔거든요. 그분이 도와줘서 철조를 여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유학 서류도 대신 처리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도 오셨어요. 2008년에 3개월 정도 같이 머무르셨지요. 저랑도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윤신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기 작품 하는 거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라고 하셨어요. 작업할 때면, 옆 친구 작품이 쓰러지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작업에만 매달렸다고요.
Lim 선생님께선 1964년부터 1969년까지 파리에서 유학하셨지요. 이응노 작가의 전시나 작업실에 놀러간 적도 있나요?
Kim 그럼요. 이응노 선생님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내가 조각을 가르쳐드렸거든요. 1964년에 이응노 선생님이 파리동양미술학교(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를 열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동양화를 가르쳤잖아요. 그때 저한테 "내가 조각을 하고 싶은데, 네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구나"라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있으세요?" 물었더니 "여기 뒤에가 다 밤나무잖니, 구해놓으마." 하셨지요. 그래서 선생님 댁 지하실에서 목조각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톱도 쓸고 도끼질도 하고, 끌이랑 망치로 파내고.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에 끌려오셔서 감옥에 가셨잖아요. 거기서도 밥을 모아 밥풀 조각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Lim 예, 그게 1967년의 동백림사건이지요. 이응노의 〈군상〉 시리즈 조각의 한데 엉켜있는 모양이 선생님의 〈2단1좌〉 같이 엉킨 조각이랑 공통점을 가져서 무슨 관계일까 늘 궁금했거든요. 의외로 직결 지점이 딱 있군요. 근데 감옥 다녀오신 이후에도 교류가 좀 있었어요?
Kim 아니요. 대신 나중에 이응노 선생님 조카 이희세(1932~2016, 이응노의 막내동생 이흥노의 아들)가 우리 동양화과 선배였는데, 거기랑 후배 석란희랑 나랑 셋이서 집 하나를 얻어 각자 방 하나씩 쓰면서 같이 자취를 했어요. 이응노 선생님은 파리에서 스타였어도 삶은 어려웠어요. 나중에야 좋아지신 거지. 파리에서 한국 밥 해주신다고, 시금치로 김치를 담갔다고, "너 이거 맛 좀 봐볼래?" 하셨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오히려 박인경 선생님은 요리 잘 못하셨어요.
Lim 신여성이잖아요. 이응노 선생님은 북조선에도 아들이 있었죠.[6]
Kim 그것 때문에 잡혀들어가신 거 아녜요. 아들이 경찰인가, 꽤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북에서 신문, 책이 얼마나 많이 유럽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유학생들 집 앞에 가면 책이 쌓여있었어요. 그러다가 동백림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름 방학을 앞두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남학생들이 안 나오니깐 교수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찾아보니깐 새벽에 애들이 온데간데없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공작원들이 베를린으로 데려간 거지요. 당시 음악 작곡하는 남자애 말을 들었는데, 걔는 새벽에 잠옷 입고 끌려갔대요. 정신을 차려 보니깐 어떻게 왔는지 베를린 한국 대사관 지하에 묶여 있었고요.
Lim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 위반이죠. 자국민 납치.
Kim 대통령 명령으로 파리에 비행기를 세워두고 거기 있던 남학생들을 다 잡아간 거라지요. 여학생은 하나도 안 끌려갔어요. 여자로는 대사관 영사 한 명만 붙들려

〈합이합일 분이분일 2000-653〉 알가로보 나무 38×78×64cm 2000_김윤신은 알가로보, 팔로산토, 케브라초, 라파초 나무 등 아르헨티나 현지의 단단한 목재를 주재료로 활용했다.

오른쪽 페이지
〈내 영혼의 노래〉 캔버스에 혼합재료 70×70cm 2018_김윤신의 추상화에는 세포, 포자, 대지 등 만물의 '원형'을 상징하는 도상이 자주 등장한다. 나무의 껍질, 나이테, 줄기, 이파리 등 목조각의 요소를 회화에 도입했다.

갔대요. 독일에서도 그때 많이 잡혀들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지평선, 사람, 나무

Lim 한국 추상 미술운동 과정에서 평론가의 흐름이 방근택(1929~92), 이일(1932~97), 오광수(1938~)로 이어지잖아요? 오광수 선생과는 연이 있으셨지요?
Kim 오 선생님은 아르헨티나 집에도 왔었어요. 1988년에….
Lim 오광수 선생님은 196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신설된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했습니다. 당선작이 「전통 계승의 인식」이었어요.[7] 선생님의 초기 작업에도 전통의 창조적 재해석이 중요했잖아요. 왜 그랬나요?
Kim 새삼 한국 전통에서 보이는 곡선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복 저고리의 선, 처마의 올라가는 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곡선들이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끼워 맞추는 전통 건축 목구조 양식의 조각을 생각했지요.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없어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요. 1970년대 중반엔 토막을 쌓아서 조형을 이루는 〈기원쌓기〉 연작을 시도했어요. 근데 전시 하나를 끝내고 나면 작품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로 작품 하나를 완성해야겠다 싶었지요. 1978년부터 '합이합일 분이분일(合二合一 分二分一)'을 바탕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붙어있는 형태로 쌓아 올린 형상을 구현하게 된 거예요. 합쳐도 나눠어도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김윤신 / 1935년 원산 출생. 1955년 홍익대 조소과에 입학해 김정숙 교수에게 용접 조각을 배운다. 1958년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조소 부문에 〈아침〉으로 특선. 1964~69년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조각과 및 석판화과 수학한다. 이후 귀국해 1974년 한국여류조각가회를 발족한다. 1980~83년 상명대 조소과 교수를 역임하다 1984년 아르헨티나로 이주, 40여 년간 정착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다. 2022년 귀국한 작가는 현재 제자 이윤숙의 봉담작업실에 거주하며 활발하게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마드리드한국문화원(2019), 바르샤바한국문화원(2019), 한원미술관(2015), 박여숙화랑(2003), 현대화랑(1990), 멕시코 국립예술궁전(1989), 한국프레스센터(1969) 등에서 개인전 개최.

조각이요.

Lim 선생님께서는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1978) 이후 제작된 도록『한국의 추상미술: 20년의 궤적』(1979)에도 등장하실 정도로 늘 빠짐없이 언급되던 주요 작가였어요. 그런데 왜 1983년 말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떠나셨나요?

Kim 즉흥적인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 조카가 거기 지냈거든요. 상명대 교수로 일할 적인데, 나한테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 학교에다가는 방학 동안 전시하러 다녀온다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가서 나라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깐 너무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지평선, 그게 참 아름다웠어요. 땅하고 하늘이 평행해요. 둘째는 사람. 순하고 착해요. 셋째는 나무. 굵은 나무가 무성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직후라 비쩍 마른 나무밖에 없었거든요.

Lim 가자마자 전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Kim 맞아요. 무작정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문화 담당자가 계시냐 물었더니 고부안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내가 이 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 씨가 당황해서 "어디서요?!"라고 묻길래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관이라고 답했지요.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원. 그래도 내 이력서를 보고는 "대학 교수시군요" 하면서 지하실에서 술 한 병을 턱 꺼내오더니 "그럼 갑시다!" 해서 따라갔어요. 현대미술관장 로베르토 델 비야노가 전시야 열어줄 수 있는데, 당신 작품을 전혀 모르니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두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톱 하나 사서 작업했어요. 행길에서 작업해서 뜨락으로 들여놓고는 미술관 사람들한테 보여줬지요. 그 관장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 미술관에서 30년 근무하면서 나무 작업을 많이 봤지만, 겉껍질이 붙은 채로 속살을 드러낸 목조는 처음 봤다"라고 해요. 흔쾌히 전시를 열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준비 기간으로 일 년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머무르게 된 거예요. 일 년 동안 만든 작품이 서른 점. 부에노스아이레스 식물관 야외에서 두 달 동안 전시할 수 있었어요. 그때 현지 신문에도 소개되고, 여기저기 전시하자고 연락이 많이 왔지요.

Lim 방학 때 오셨다가 안 돌아가셨어요. 고민도 깊으셨겠습니다.

Kim 그렇지요. 하지만 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예술학교를 나왔으니깐요. 선생이 아니라요. 작업을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1,000점은 만들고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에 올 때 보니깐, 거의 그만큼 됐겠더라고요.

Lim 선생님의 작업 세계도 한국 현대미술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추상표현주의적 철조 조각으로 시작해서, 전통의 창조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한 고색추상/토속추상, 회화로 치면 앵포르멜과 궤를

〈합이합일 분이분일 2019-20c〉 모라 나무에 채색 33×46×60cm 2019_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료 수급에 제약이 생기면서 나무에 채색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오른쪽 페이지
〈노래하는 나무〉 알루미늄에 아크릴릭 88×108×118cm 2023_〈더하고 나누며, 하나〉 전경. 목조각을 알루미늄으로 캐스팅했다. 각 단면에 세 가지 색상을 칠해 다채로운 생명력을 표현했다.

이전 페이지
〈내 영혼의 쉼〉 캔버스에 유채 150×540cm 2014

같이하는 작업을 전개하다가, 조금 더 나무의 물성 자체에 집중하는 완전 추상을 전개하던 와중에 아르헨티나로 거점을 옮기신 셈입니다. 또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새로운 성격의 나무와 새로운 성격의 준보석 원석들을 만났습니다.

Kim 아르헨티나 나무들도 워낙 단단해서 낯설었지만, 멕시코에서 돌 작업을 전개하던 시절이 가장 힘에 부쳤어요. 물로 식혀가면서 돌을 잘라도 오닉스가 워낙 단단해서 종종 날이 튀곤 했어요.

Lim 한국에서는 1978년 동아미술제, 중앙미술대전이 창설되면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는 신형상미술이 등장했습니다. 포토리얼한 그림들 외로, 조각도 김영원(1947~)처럼 이미지와 서사를 다루는 작업이 나왔지요. 그런 흐름엔 관심이 없으셨나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나도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는 의지 같은 거요.

Kim 딱히…. 변화에 반응해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어떤 표현이 '내'가 될 수 있는지,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 표출할 수 있는지만 생각했어요.

Lim 아르헨티나 사시는 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Ran 제가 준비했지요.

Lim 사실 김란 선생님과 김윤신 작가님의 스토리도 무척 궁금합니다.

Ran 저는 1957년생인데 재수해서 77학번이에요. 성신여대 조소과 다닐 적에 김윤신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1~2학년 때 듣는 기초 조소 실기 수업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다 선생님 큰 작업하는 거 도와드리고, 파리 다녀오실 때 집을 봐드리고 하면서 친해졌지요.

Lim 두 분은 아르헨티나에도 쭉 같이 사셨어요. 함께한 세월이 40년이나 되는군요.

Ran 아르헨티나에 간 건 제가 먼저였어요. 선생님 조카분이 저랑 각별한 관계였거든요. 나중에 조카분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애들 데리고 캐나다로 떠났어요. "고모를 부탁할게"라고 하면서요. 조카가 사실 선생님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무수리(?!) 생활'이 벌써 40년이나 됐네요.(웃음) 갈등도 있었지만요, 언제나 길은 있더라고요. 나중엔 저희 엄마도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들어오셨어요. 두 노인을 모신 거죠. 그래도 저는 그저 선생님 작업이 너무 좋았어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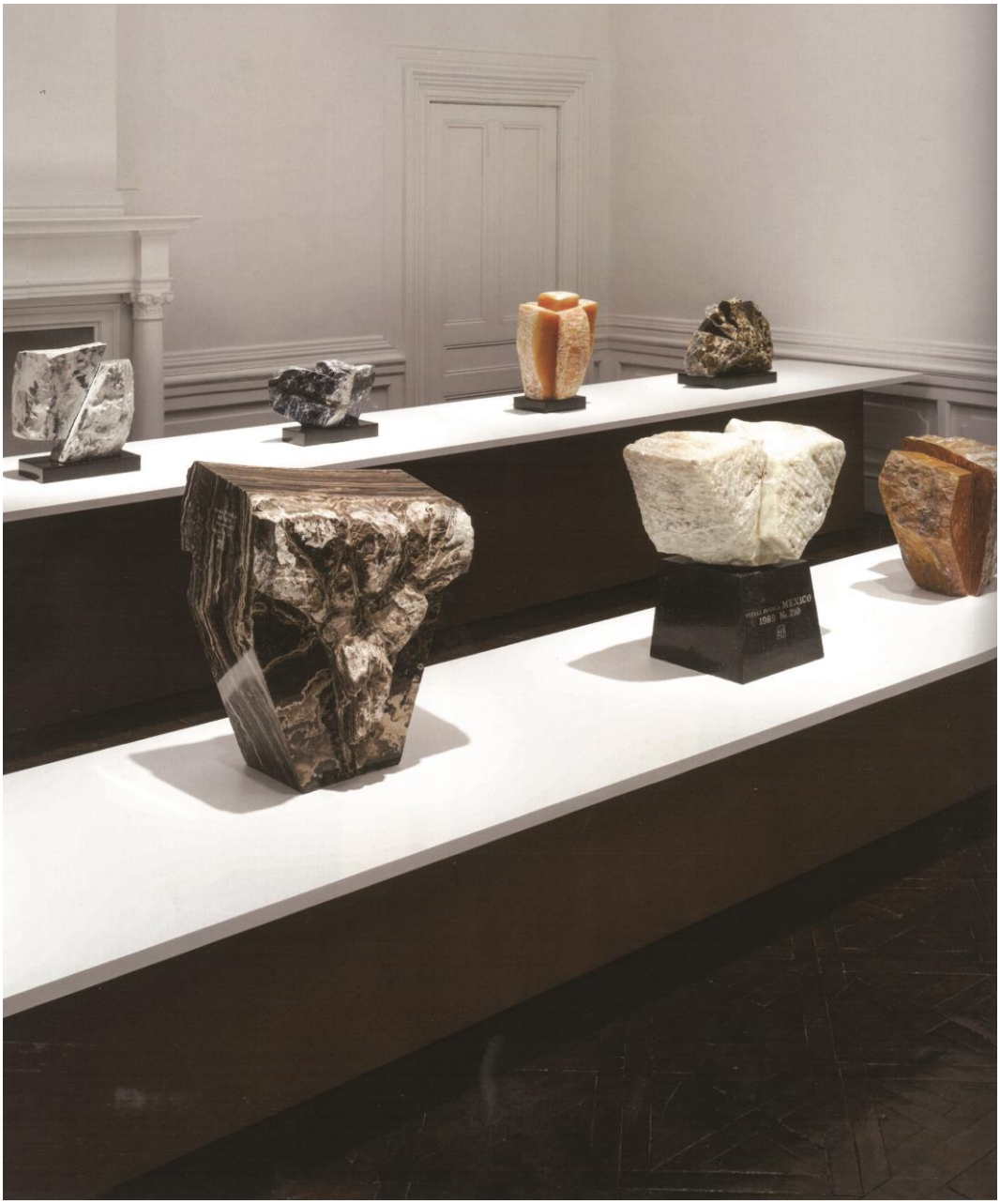
Kim 그때 테레사(김란)가 나한테 "선생님, 미술사에 나온 사람들도 다 배고프게 살았잖아요. 내가 선생님 도와드릴 테니깐, 아무 걱정 마시고 작업만 하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나 싶었지요. 고마워요.

Lim 2018년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 김윤신 작품 상설 전시장이 마련됐어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Ran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셨던 전병국 씨가 아르헨티나에 왔다가 김윤신미술관이 있다는 얘길 듣고 찾아오셨어요. 개인이 어떻게 미술관을 하느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런 건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며. 그래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 방을 마련하라고 얘기가 나왔지요. 사실 당시만 해도 한국문화원이 세를 살고 있었는데, 마침 2017년에 각 나라 문화원이 건물 부지를 사게끔 하는 예산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국문화원 2층에 작게 김윤신 전시장이 생겼어요. 교체해 가면서 전시할 수 있도록 18점을 기증했지요.

합과 분의 반복, 무한대의 영원

Lim 이우환 선생님을 통해 일본 모노하 이론이 한국에 많이 소개됐잖아요. 모노하의 물질과 선생님 작업 세계의 물질과는 뭐가 다른 거 같으세요?


MEXICO

Kim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네요.
Ran 제가 보기에는, 모노하의 물질이라면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 물질과 하나가 돼서 그걸 나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Lim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의 전시 영상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얘가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얘가 되어야 하고."
Kim 그게 중요해요. 나는 별다른 구상 없이 바로 나무에 작업합니다. 판화작업을 하던 시절에도, 형태 먼저 사고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선을 그어나가다 보면, 선을 쳐나가다 보면, 형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내가 되는 순간, 톱을 들어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선으로 그어가듯 톱질을 해 나무에 내재해 있던 면을 이끌어 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면들이 서로 이어지면서, 내 손과 나의 감정이 나무와 하나로 연결되지요. 손을 떼는 순간, 완성된 것을 바로 세워놓고 보면 그제서야 내가 하늘에 닿고자 하는 나의 꿈을 토템적으로 구현했음을 발견해요. 합과 분은 동양 철학의 원천이고 세상을 존재케 하는 근본이에요. 나는 1975년부터 그런 철학적 개념을 추구해 오고 있고, 그래서 나의 작품에 〈합이합일 분이분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개체가 하나로 만나며 그 합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인간 생명의 존재에서처럼 합과 분이 계속 반복되며 무한대의 영원을 지향합니다. 나의 정신, 영혼도 육체적 존재와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자로부터 축복받은 존재이길 염원하면서.
Lim 아 참, 종교 있으세요?
Kim 가톨릭 신자예요. 세례명은 잔느. 세례는 파리 유학 가서 1965~66년 정도에 받았어요. 요즘도 성당에 나가고요.
Lim 우리나라 남자 작가들은 민족주의 때문인지, 민예나 토속 전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것만으로 작업하는데,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의 여러 지역의 향토색을 흡수해 서구 추종의 모더니즘에서 벗어난 범인류의 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한류도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의 타자화되고 주변부화된 청소년, 청년들이 한류의 또 다른 주인공이니까요. 선생님도 1988년 이후 온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각 지역의 토속적 색채를 상호 연결해서, 작업 세계를 더 크게 성장시켰어요. 이런 선생님 작업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이 깨닫길 바랍니다. 김윤신의 포용하는 조형 세계가 하나의 오브제를 뛰어넘어 누구나 공유 가능한 거대한 시공으로 제시되는 순간, 바로 그걸 보는 게 제 꿈입니다.
Kim 고마워요. 내 소원이 작업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술이 삶이 되어야지.

〈피안 No.3〉 알가로보 나무에 아크릴릭
45×47×50cm 2014

왼쪽 페이지
〈더하고 나누며, 하나〉전의 '오닉스' 시리즈 섹션 전경_1988~91년 김윤신은 멕시코 테칼리 마을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오닉스'라는 준보석 광물로 석조각을 제작했다. 거친 표면과 영롱한 단면을 대비해 우주의 신비로운 힘을 형상화했다.

*편집자 주
1) 1948년 8월 25일에 진행된 총선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설치된 이후, 즉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독 정부 수립 직전이었을 것으로 본다.
2) 1950년 4월 29일 국립극단이 창단하면서 국립극장이 됐다.
3) 『동아일보』 등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민관, 즉 국립극장에서 서울발레단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안데르센의 원작을 바탕으로 〈인어공주〉를 공연하고 있었다.
4) 체류했던 절은, 아마도 오늘의 관음사였을 듯하다. 1927년 건립될 당시의 이름은 선림사(禪林寺)였는데, 나중에 묘심사(妙心寺)로 바뀌었다가, 6·25전쟁 시기엔 경찰 주둔지로 사용된 이력이 있다.
5) 다소간 기억이 뒤섞인 듯하다. 1954년 제1회 홍대미술전은 '종로홍익회장'으로도 불렸던 '홍익화랑'에서 열렸는데, 1955년 상수동 캠퍼스 낙성식을 기념해 열린 제2회까지 같은 장소에서 대형 행사로 전개됐고, 1956년의 제3회는 국립미술관에서 개막해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 관람하기도 했다. 당시의 '홍익화랑'은 종로2가 장안백화점 뒤에 있었던 홍익대학교 미술과 실기실을 말한다.
6) 이응노는 첫 배우자 박귀희 사이에서 오래도록 자식이 없자, 둘째 형 이종노의 차남 이문세(1923~96)를 양자로 들였다. 6·25전쟁 당시 월북한 이문세는, 북한 사리원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정년을 마쳤다고 전하기도 한다.
7) 당시 오광수는 고구려의 힘찬 기상, 고려의 섬세함, 조선시대의 '많은 것을 벗어던지는 형태'를 하나의 연관성에서 인식하자고 제안했다.

ARCHIVE

1 1955년. 홍익대 조소과 재학 시의 습작 조각. 학기 중에는 모델을 두고 전신상을 만들었다. 김경승 교수가 김윤신의 구상 인체조각을 보고 로댕의 조형을 터득했다는 평가를 주었다. **2** 1958년. 졸업 전시장에서 친구와 함께. 이 해에 김윤신은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조각 부문에서 〈아침〉으로 특선을 수상했다. **3** 1961~63년 철 용접 조각에 몰두했다. 김윤신은 재학 시절 김정숙에게 용접 조각을 배웠다. 김정숙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홍익대에 용접 실기실을 개설했다. **4** 1962년 무렵의 부산 아뜰리에 전경. 졸업 후 부산 한성여대에 출강하며 추상표현주의 철 조각과 회화에 몰입했다. **5** 1963년. 철 용접 조각 〈부채를 든 여인〉. 김윤신은 가느다란 볼륨의 철골 조각에 피폐한 전후의 시대상을 담았다. 같은 양식의 대표작 〈재생의 의지1〉(1962), 〈혈(穴)〉(1962), 〈생태〉(1963)는 망실돼 현재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6** 1963년. 〈도불조각개인전〉(부산문화공보원) 전경. 이듬해 김윤신은 파리 유학을 떠났다. **7** 1963년. 홍익대 동기 오태근(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제자들. 오태근은 파리 유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만큼 김윤신과 친밀한 사이였다. **8** 1963년. 홍익대 미대 건축과 55학번 여학우 동기 천병옥(왼쪽)과 함께.

12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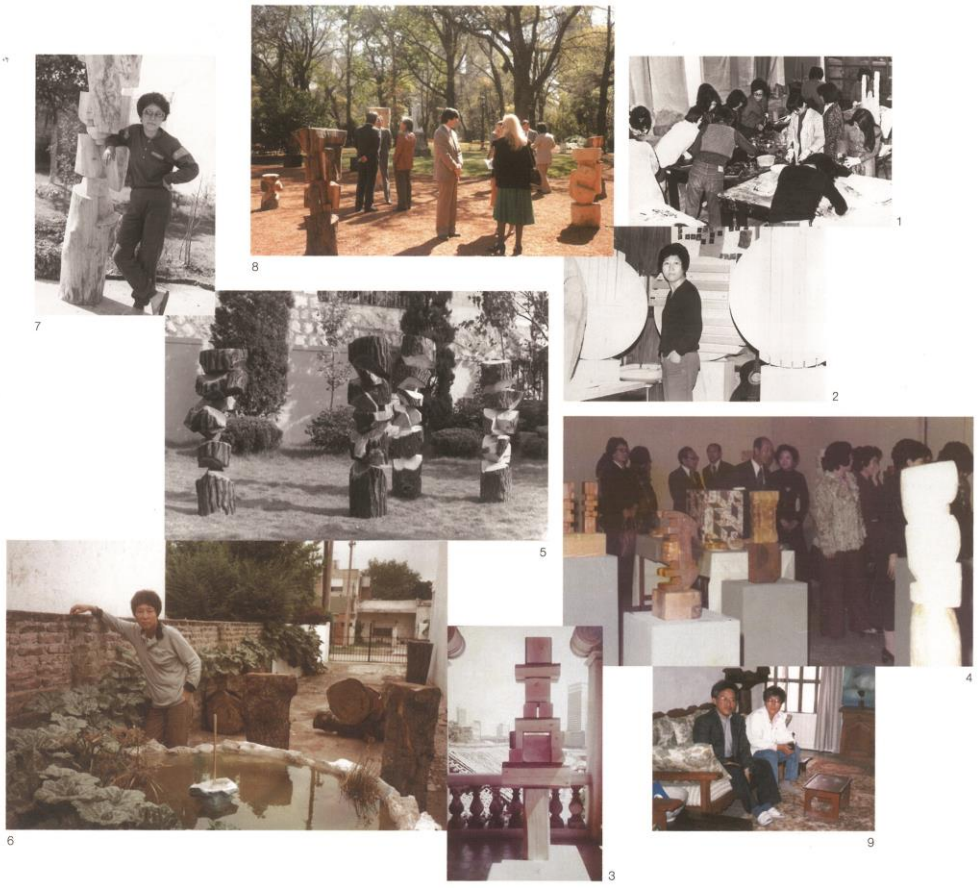
15

14

13

16

9 1964년.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김윤신은 조각과 석판화를 공부했다. 계란판, 유리병, 재활용품 등 다양한 재료를 깨고 붙이는 실험에 몰두했다. 사진은 서울에서 보내준 박으로 제작한 조각작품. **10** 1964년. 미술학교 동료들과. 유학 시절 김윤신은 한국에 있는 친구 송경에게 "세계가 요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가자."라고 쓴 편지를 부친다. **11** 1964년. 파리 알렉상드르 3세 다리에서. 왼쪽부터 연예인 장서일, 김윤신, 의상디자이너 김미사, 건축가 강석원. **12** 1964년. 파리 한인 유학생들과 샹보르성 단체 나들이. 맨 앞줄 왼쪽부터 세 번째가 미술평론가 이일, 맨 뒷줄 오른쪽부터 세 번째가 서양화가 한묵. **13** 파리에서 김윤신은 석판화과의 크로강 교수를 사사하고 콜라주와 판화 기법을 이용한 〈예감〉 연작을 제작했다. 사진은 판화 실기실에서. **14** 1965년. 파리 근교의 이응노 자택 앞에서. 왼쪽부터 김윤신과 이응노, 박인경 부부. 이 무렵 김윤신은 일주일에 한 번 이응노에게 목조각 기법을 알려주었다. **15** 1969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귀국 기념 석판화전. 전시장을 방문한 김정숙(오른쪽 맨 앞)과 후배들. **16** 1970년대 초반. 이 시기 김윤신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나무 덩어리를 쌓아 올리는 작품을 제작했다.



1 1970년대 초. 파리에서 귀국한 김윤신은 경희대, 목원대, 성신여대, 성심여대, 청주여사대, 홍익대 등에 출강했다. 사진은 조소과 수업 장면.
2 1974년. 〈심판의 척도〉 시리즈. 같은 해 1월 12일 김윤신은 김정숙, 윤영자와 함께 각 대학의 여성 조각가를 규합해 한국여류조각가회를 발족했다.
3 1974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제10회 한국미술협회회원전〉에 〈바벨탑 쌓기-1〉을 출품했다. 전통 탑의 조형미를 현대조각에 접목했다. **4** 1976년. 미즈갤러리 개인전 전경. 이 시기 김윤신은 장승, 돌탑 등 한국의 민간 신앙에 영감을 받았다. 수직 형태에 염원의 주제를 담은 〈기원 쌓기〉 시리즈를 제작했다. **5** 〈1999.9.9.-믿음〉 등 1978~79년에 제작한 목조각. **6** 198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작업장에서. 김윤신은 1983년 말 조카가 거주하던 아르헨티나의 여행에서 굵고 단단한 나무의 풍성한 자원에 매료됐다. 현지에서 상명대 조소과 교수직을 사임하고 스튜디오를 마련해 정착했다. **7** 1984년. 〈합이합일 분이분일〉 시리즈. **8** 198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식물원에서 개최한 개인전.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관장의 협조로 대형 야외조각전을 열었다. **9** 1988년. 김윤신의 아르헨티나 작업실을 방문한 미술평론가 오광수.

10 1988년. 진화랑 개인전 개막식에서. 오른쪽 두 번째부터 김윤신, 김정숙, 맨 끝이 유진 진화랑 대표. 같은 해 김윤신은 멕시코의 준보석 '오닉스'로 석조각 작업을 시작했다. **11** 199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칸델라리아갤러리의 단체전에서 아르헨티나 작가들과 함께. 김윤신은 아르헨티나의 예술인, 평론가, 미술관장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12** 199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레콜레타문화원 개인전에서. **13** 1998년. 김윤신 개인전 카탈로그. 국민은행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점을 개설해 기념전을 열었다. **14** 2001년. 〈제7회 로사리오 국제조각 심포지엄〉 참가 사진. 이 시기에 김윤신은 남미의 토템에 영향을 받아 목조각에 채색을 처음 끌어들였다. **15** 2002년. 〈베이징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대형 조각을 출품했다. **16** 2018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왼쪽)의 주도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 김윤신 상설 전시장이 마련됐다. 작가가 18점의 조각을 기증했다. 2008년에는 사비를 들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김윤신미술관을 열었다. **17** 김윤신은 2022년 귀국했다. 제자 이윤숙(왼쪽) 조각가의 화성 작업실에 거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제자이자 김윤신미술관장을 맡고 있는 김란(오른쪽)은 40여 년간 김윤신의 생활과 작업을 돕고 있다.